

王陽明의 理想的 國家論(四)

저자미상

思想이라 함은 良知를 思想함을 謂함이니 良知의 本體를 捉하여 此를 未得하며 體得하는 것이 思想家의 任務도다. 眞理란 것은 良知를 措하고 求치 못 할지니 良知의 思考와 研究가 즉, 眞理이니 良知를 □함 思想은 思想이 아니라. 邪想이요 妄想이로다. 學問이란 것도 良知를 學하여 良知의 □를 問하는 것을 謂함이니 良知는 宇宙의 本體이요 人生의 根本義이라. 良知를 措하고 世에 學文의 存在가 有치 못할 것이로다. 學問은 어찌單히 精神界에 限할 뿐 이리오. 物質界의 一事一象이 悉質 良知의 發現이 아니면 何이리오. 山川草木의 大로부터 木塊瓦石의 微에 至하기까지 良知의 光明이 遍치 아니함이 없으며, 自然科學과 機械科學이 모다 良知의 研究에 不外함것이라 할지로다.

哲學은 良知의 本體를 究明하는 學問이요. 宗教는 良知의 無量光明을 仰하며 良知의 無限天國에 歡喜禮拜하는 學이 되나니. 良知란 것은 此를 宗教的으로 說하면 全히 神□ 것이요. 眞如의 本體 그것이 되는 것이다. 卽 換言하면 良知에 事하는 것이 □히 敬虔하며 嚴肅한 宗教生活이 되는 것이요. 良知를 信하는 것이 眞正의 信仰이며, 文學과 藝術은 良知를 美現하며 頌榮하는 學이라. 天地人生의 根本生命되는 良知를 □하여 何에 文學藝術이 있으리요. 美란 것은 良知의 光明을 謂함이요. 良知는 半面으로부터 見하면 眞히 無限의 神秘이며 審美이로다. 卑近한 □□ 太陽에 求하건데, 太陽은 太陽界內의 中心的 本體로 無限洪大의 大□□을 成하여 此地球上의 萬物은 □그光에 浴하여 生生發達의 實을 遂하나 更히 太陽 그것의 大光景을 仰하면 實로 想□키도 不能한 神秘體요 美體가 되는도다. □히 神秘라 하는 것이던지 美라 하는 것은 本體에 對한 憧憬과 乃至 그 本體의 □하는 雄大力의 光景을 謂함이라. 茲에 眞正의 美는 반다시 眞正의 理와 善에 一致하는 것이요. 眞善美란 것은 本體의 無量偉大性의 三面觀에 不過하나니. 假使眞과 善과 美를 三分한다 할 지라도 根本은 一體에 發하여 三位一體가 되는도다. 卽眞美는

眞善眞眞을 兼備하며 眞善은 眞美眞眞을 兼備하며 眞眞은 眞美眞善을 兼備
 하여 그 本體는 一이로되 그 作用이 三分함에 不過하니 그 本體란 것은 實
 로良知 그것ियो. 眞善美란 것은 良知의 三方面三 作用 三光景과 乃 至三 活
 動을 指示한 그것이 되는도다. 此 良知의 三方面을 詳別홀진데 哲學은 眞을
 目的하며, 道德, 宗教는 善을 目的하며, 藝術은 美를 目的하는 以上에 各히
 그 窮極의 理想은 本體인 良知의 上에 在치 아니하면 못되나니. 良知의 眞을
 明히 함으로 茲에 哲學, 科學에 遠한 生命이 있으며, 良知의 善을 明히 함으
 로 茲에 道德, 宗教의 不□의 權威가 있으며, 良知의 美를 明이하는지라. 茲에
 文學藝術의 無限洪大흔 歡喜가 있으며, 視□이 있으며 勇□이 있나니. 良知를
 □한 學問思想文藝는 能히 邪教요 魔術이로다. 此本體의 上에 立하여 一念으
 로 本體의 光明을 失치 아니하는 곳에 陽明學의 思想觀과 經世觀이있도다.

近代에 流行하는 所謂 自由獨立平等으로 乃 至創造進化와 其他 最高價値
 의 生活이라 하는 것은 皆 그 根底를 良知에 置치아니하면 無意義가 되는
 도다. 良知는 大我天地를 □動하는 根本의 活力이요. 生命이다. 此活力 活生
 命의 證得이 비로소 □正의 自由가 되나니. 所謂 縱橫無碍 上下 圓通의 自在
 力은 良知를 措하고 他에 求치 못홀지라. 良知 그것이 元來 大自由, 大自在
 의 活體인즉 眞正의 自由를 憧憬하는 사람들은 進하여 良知의 本體를 捉得
 하기에 努力치 아니치 못 홀지라. 孟子의 浩然之氣라 한 것은 아즉 氣이요.
 本體가 아니나 그러나 孟子는 此의 說明하여 至大至剛으로 天地에 塞흔다
 하였도다. 그러면 此 至大至剛하여 大地의 間에 充塞흔다함은 卽 自由의 最
 高境을 示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此浩然의 氣도 道로써 養함을 要하나니 道
 와 義에 配하여 비로소 餓치 아니하는 것이요. 須臾 일지라도 道와 離하면
 卽 衰亡하며 飢餒하여 本來로는 至大至剛하여 天地에 充塞홀 雄力이 頓히
 銷沈枯削하여 衰死에 陷한다 하얏스니 此道란 것은 卽 良知를 □한 것이다.